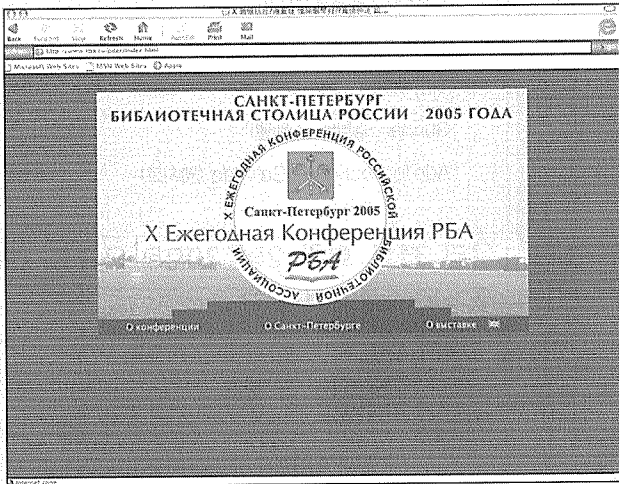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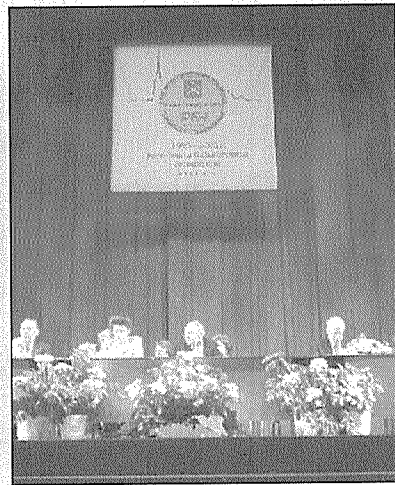


## 러시아도서관협회 10주년 기념 총회 참석

김윤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장  
2006서울WLIC 조직위원회 제1협력분과위원장  
yskim@kiep.go.kr



〈총회 참가 안내 홈페이지〉



〈개막식〉

5월 23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총회와 각 분과위원회에는 러시아 전국에서 온 도서관 관련 정부인사, 학자 및 도서관장 등 현지에서만 2,000여명이 참석하였고 해외의 초청 인사들도 많은 참석을 하였다. 특히 올해는 러시아도서관협회(Russia Library Association) 창립 10주년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국가도서관(National Library of Russia) 창립 210주년 기념일이기도 한 해이기 때문이었다.

“학문, 교육, 계발, 훈련에 영향을 미치는 도서관의 역할”이라는 주제 하에 상트 페테르부르크 시내 중심가에 있는 Great Concert Hall에서 개최되었다. 회의는 유럽 및 미주지역 초청인사 및 알렉스 번(Dr. Alex Byrne)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차기 회장 등이 참석하였고, 한국 측에서는 한상완 2006서울 WLIC(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겸 협회 차기 회장이 참석하였다. 올해는 러시아도서관협회 창립 10주년 및 러시아 국가도서관 창립 210주년 기념행사로 개최되어 본회의 주제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과 공조의 이슈가 토의되었다. “Saint Petersburg Is the Library Capital of Russia” 라는 협회의 슬로건이 웅변하듯 수도 모스크바가 러시아 정치·경제의 심장이라면, 상트 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의 두뇌에 해당하리만큼 도서관, 문화유산이 산재해있는 문화의 중심 도시로 풍부한 문화유산의 보고였다.

사이제브(Dr. Vladimir Nikolaevich Zaitsev) 러시아도서관협회장 겸 국가도서관장의 러시아도서관협회 10년간의 활동보고(1995-2005)로 시작된 개막식은 브로프(Nikolai Vitalievich Burov) 상트 페테르부르크 문화위

원회 위원장의 “상트 페테르부르크도서관의 현재 그리고 미래와 전망”이라는 주제의 연설로 이어졌다. 러시아의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지방공공기관들은 정부에서 주던 예산이 끊기고 재정상태가 어려워져 박물관, 병원 등 모든 공공기관들이 입장료를 받아 운영하는 가운데에도 도서관만은 현재까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 문을 닫은 도서관은 3-5개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로 도서관인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을 치하하였고, 이제는 나라에서 도서관을 보살펴주고 관심을 갖고 잘 운영해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새로운 정부체제가 교육문화부에 도서관국을 없애버린 사실은 정부가 더 이상 러시아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뜻으로 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이제 너희들에게 자유를 줬으니 너희들이 자유롭게 알아서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잘못되었을 경우에도 모두 너희들 스스로의 책임이다’라는 뜻이 아니냐며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였다. 프로그램에는 없었지만 이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정부당국자인 시국회의원이 나와 도서관국이 없더라도 도서관을 담당할 담당자는 있을 것이고 또한 국이 없어졌다고 도서관 관련 업무를 안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명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은 구러시아 체제 하에서 자유가 없다고 비판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제 자유는 싫고 예산만 요구하니 도대체 뭐가 필요하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이를 중재하기위해 나선 사이제브 도서관협회장마저도 ‘자유를 주고 예산을 안주는 것은 ‘자유’라는 단어만 준거와 다름없다’고 응수해 많은 참석자들이 열렬한 환호를 보냈다. 이러한 회의진행 과정을 보면서 정치적인 민주화, 자유화는 이루어졌으나 그동안 정부에서 지원되던 예산이 끊기고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알아서 예산을 해결해야하는 열악한 상황에서 어려운 국면에 처한 도서관 현장도 민주화로 이행해가는 과정의 과도기 현상을 겪으며 몸살을 앓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다.

개막식 직후 사이제브 러시아도서관협회 회장 겸 국가도서관장, 자파르네바 도서관협회 사무총장(Dr. Maiya Alexandrovna Shaparneva), 브로프 상트 페테르부르크 문화위원회 위원장(Nikolai Vitalievich Burov)등과 최초로 한국과 러시아도서관협회와의 업무협약의 및 2006서울WLI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 및 대규모 대표단 파견과 지원을 약속하였고, 26일에는 알렉스 번 IFLA 차기 회장과 올스티코바(Dr. Olga A. Yolstikova) IFLA 러시아정보센터장 등 관계자들과 2006서울WLIC 준비 및 진척 상황,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대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전 국제세미나 개최 등 필요시 알렉스 번 IFLA 차기 회장이 서울대회 개최 이전에 한국을 방문하여 주요관련 인사들을 만나 사전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본회의는 10개 분과가 30여개의 소주제 그룹으로 나뉘어 4일동안 발표와 토론을 거쳐 Plenary Session에서 종합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필자는 해외협력 분과에서 진행하는 Meeting of the Leaders of IFLA Sections, Section for International Contacts에서 두 차례에 걸쳐 2006서울WLIC 소개 및 홍보 관련 발표를 하였다. 마침 Session에는 러시아의 IFLA 관련 현지 주요 인사들이 대부분 참석한 자리여서 예상외의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여장부 타입의 올스티코바(Dr. Olga A. Yolstikova) IFLA 러시아정보센터장이 통역을 자임하고 나서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 27일 총회에서는 한상완 집행위원장의 2006서울WLIC에 러시아 도서관인들을 초청한다는 요지의 연설과 끝으로 오늘 참석한 많은 도서관인들을 서울대회에서 다시보기를 희망한다는 러시아 인사말에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특히 회의에 참석한 외국의 초청인사 및 도서관 관계자들은 IT 강국인 한국에서 열리는 2006서울 WLIC에 참여하여 ITC(Information Technology and Communication) 발달과는 불가분의 관계인 서울의 도서관

실험현장을 실제로 경험하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의사를 전하는 수확을 거두었다.

서울에서 상트 페테르부르크까지 여름기간에는 주 3회 직항편이 운항되지만 회의일정상 파리를 경유하여 13시간의 긴 여행 끝에 늦은 저녁에 도착한 우리를 위해 러시아도서관협회의 직원들이 공항으로 마중을 나왔다. 이미 저녁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순간적으로 낮에 도착한 것으로 착각한 것은 시차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렇다! 처음 경험해보는 백야인 것이다. 시기적으로 6월부터 시작된다고 하지만 이미 그 가장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이었다. 우리가 도착한 기간의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날씨는 다소 쌀쌀하리라는 예상을 뒤엎고 화창하고 덥기까지 한 좋은 날씨였다. 통역을 맡은 이나탈리아 선생조차도 1년 내내 이런 날씨를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귀한 손님이 와서 그렇다는 러시아의 속담을 이야기할 정도였다. 2006서울 WLIC 홍보를 위한 일정이기에 공식행사장 뿐만 아니라 만찬장까지도 관련 인사들을 만나기 위해 자리를 뜰 수가 없었지만 문화유산이 산재한 도시를 방문한 이방인에 대한 배려에서일까? 때마침 시작되는 백야로 밤 12시에도 불그스레한 노을을 볼 수 있을 정도였고, 회의장과 숙소인 발틱해 앞에 위치한 호텔이라는 이름을 가진 뿌리발티스카야 호텔(핀란드 만 바실리에프 섬 남단에 위치)까지는 다소 떨어진 곳에 위치해서 몸과 다리는 피곤하고, 비록 내부는 구경할 수가 없었지만 숙소로 돌아가는 길 툼툼이 기념비적인 문화유산 및 시내구경을 할 수 있었다.

상트 페테르부르크는 1703년 '서유럽으로 가는 창' 역할을 할 새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러시아 로마노프왕조 최초의 황제인 표트르 대제(피터 대제)가 9여년에 걸쳐 완성한 계획도시로 300년 전 네바강(핀란드어로 '늪'이라는 의미) 삼각주의 늪과 섬에 지어진 물의 도시로 도시전체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다. 우리에게는 레닌그라드로 잘 알려졌고(레닌의 고향) 북방의 베네치아로 불리는 86개의 강과 운하 101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항구도시로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난 후 옛 이름을 되찾았다. 통역을 맡아주신 이나탈리아 선생의 전공이 러시아 문학이라 오가는 차안에서 많은 역사적인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특히 이 도시가 러시아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푸시킨, 고골리,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에 배경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더욱 유명한 도시이기도 하다는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문학과 사상에 조예가 깊은 한 위원장과는 막힘없는 대화가 이루어졌고, 저녁식사를 하러가는 도중 툼툼이 이들이 문학 활동을 하거나 살았던 도심의 생가나 노년을 보낸 집들을 - 지금은 기념관 등으로 쓰이고 있지만 - 찾아볼 수 있었다. 이 도시의 상징적인 명물로 네바강변에 나란히 위치한 에르미타주박물관도 폐관시간이 임박하여 1시간 남짓 구경할 수 있었는데, 대영박물관, 루브르박물관 등 세계3대 박물관의 하나로 280만점의 미술품들이 전시되고 있는 곳으로, 1분에 1점을 봐도 다 구경하는데 5년이 소요될 정도로 방대한 수집품을 뒤로하기 아쉬워서인지 국가에서 발행한 부피가 제법 나가는 박물관 소장도록을 사는 한 위원장의 책에 대한 사랑은 이국에서도 맘껏 발휘되고 있었다. 13세기 몽고군의 침략으로부터 러시아를 구원한 알렉산드르 네프스키를 기념해 만들어진 네프스키 대로(Nevsky Prospekt)는 모스크바역에서 에르미타주박물관에 이르는 4km의 도로로 상트 페테르부르크가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끼여 이들 모두의 문화적·예술적 특징을 보여주는 고풍스러운 곳으로, 이곳의 제일 변화가에 중앙에 러시아 국가도서관이 당당하게 위치하고 있었다. 18세기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이 왕정, 군주시대를 거치면서 도서관은 왕족과 귀족의 전유물이었지만, 1795년 5월 27일 캐더린II세(Catherine II)에 의하여 유럽 최초의 공공도서관인 왕궁공공도서관(Imperial Public Library)으로 개관한 러시아 국가도서관(The National Library of Russia)은 2001년 3월 러시아 연방법에 의하

여 국가도서관으로 지정되었으며 2004년 현재 34,150,100책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구관(Main Building)은 18세기-20세기의 필사본 등 슬라브, 동서양의 많은 문화재급의 고문서, 필사본, 희귀도서를 소장하고 있고, 1957년 이후의 자료와 정기간행물은 모스크프스키 대로(Moskovsky Prospekt)에 원형모양으로 새로 지은 신관(New Building)으로 이관하여 이용하고 있다. 27일은 국가도서관 창립 210주년 기념행사로 자연 채광이 건물 한 가운데로 비추지고, 가운데 나선형을 따라 복도가 이루어진 우아한 신관에서 만찬리셉션이 열리기도 하였다. 방대한 자료의 양 때문이기도 하지만 1994년 이후의 자료는 전산화가 되었지만 그 이전의 자료는 현재 저자/서명 목록만 전산화가 진행 중에 있었다.

러시아라는 나라가 워낙 넓고 다양한 문화를 갖고 있어서인지 국내 행사였지만 주최도시가 갖는 문화나 특색을 보여주기 위한 행사들을 프로그램에 잘 활용하고 있었다. 프로그램 중간 중간에 상트 페테르부르크 도서관 방문 프로그램이 있었고 둘째 날은 시장 주최의 발레공연도 있었다.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마린스키(키로프)극장의 확장공사로 인하여 1832년 니콜라이 1세 왕비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린스키 극장에서 초연된 '사랑은 아무도 못 말려'는 발레의 문외한인 나 같은 사람도 충분히 내용에 빠져들어 동화될 정도로 정교하고 완벽한 공연을 보여주었다. 회의 마지막 날에는 도서관협회 창립10주년기념 '도서관인의 날'을 기념하기위한 상트 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공연도 준비되어 있었지만 우리가 떠나오는 일정과 겹쳐 아쉽지만 훗날을 기약해야 했다. 이러한 프로그램 준비과정을 보면서 국내행사일지라도 참석자들의 문화적 갈증해소와 외지에서 온 참석자들을 위한 개최도시의 특색을 살린 홍보 등은 우리의 전국도서관대회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바가 컸다. 일정에 잡혀진 도서관 방문도 있었지만 우리를 위해 따로 시간을 할애하여 러시아 국가도서관의 신·구 도서관 투어 스케줄을 마련하여 IFLA 차기 회장과 우리 일행에게 국보급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는 특수 처리된 방에서 해당전문가들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항상 1-2명의 행사요원으로 하여금 체류하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의전에도 많은 신경을 써주었고, 타티아나(Tatiana)는 국가도서관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행사진행을 위하여 전체적인 스케줄 조정과 조그마한 부스를 마련하여, 가지고 간 러시아판 홍보용 책자와 기념품도 참석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한 통역을 맡은 이나탈리아 선생은 고려인 2세로, 현직 국립학교 교감선생님 겸 한글학교 교장선생으로 한국어가 교과과정의 제2외국어로 채택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고, 음식문화만이 이들의 모국을 알려주는 고려인 3세들을 위하여 사재를 털어가며 무료로 한글학교를 운영하는 훌륭한 분이였다. 본회의가 열리던 시 외곽에 위치한 얼음궁전(Ledovyi Palace)에서 20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러시아국립학교 교사를 빌어 저녁시간과 주말에 운영을 하는 한글학교도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잠시 방문할 기회도 가졌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이나탈리아 선생에게 많은 교훈도 얻었고 해외에서 고국을 알고자하는 동포들에게 정부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다.

이번 상트 페테르부르크 출장은 2006서울WLIC 홍보를 위한 참석이었지만 부가적으로 얻은 더 큰 수확은 최초로 한국도서관협회장을 공식 초청하여 러시아도서관협회와의 업무협의를 하였다라는 점이었고 러시아의 도서관인들에게 멀게만 느껴졌을 한국의 도서관을 2006서울WLIC 홍보를 통해서나마 조금이라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점이다. (KIA)